

D-365일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준비 만전

성공적 개최위해 조직위 다양한 분야에서 분주한 움직임

해외선수단 숙박업소 객실 변형 식·음료 선호도 사전 조사 등

20년 만에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스포츠 대회인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태권도 국제대회 중 최고규모인 206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이 참석이 예정된 이번 세계대회는 2017년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최대 규모의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대회 조직위원회는 중추적으로써 위상 강화, 전라북도 무주 태권도 브랜드 창출, 태권도와 ICT 기술을 결합한 스포츠 융복합산업 창조 등을 목표로 삼고 다양한 분야에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직위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의 최상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5개 숙박업소를 지정해 온돌형태의 객실을 침대형태로 변형하는 작업과 선 국가별 식·음료 선호도를 사전 조사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이고 있다.

교통 역시 선수단과 관람객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위해 무주리조트와 경기장간의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공항 및 터미널에서 무주까지의 전세버스 배차와 시외버스 증차 등 확정했다.

지난 4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해 대회가 국가주관대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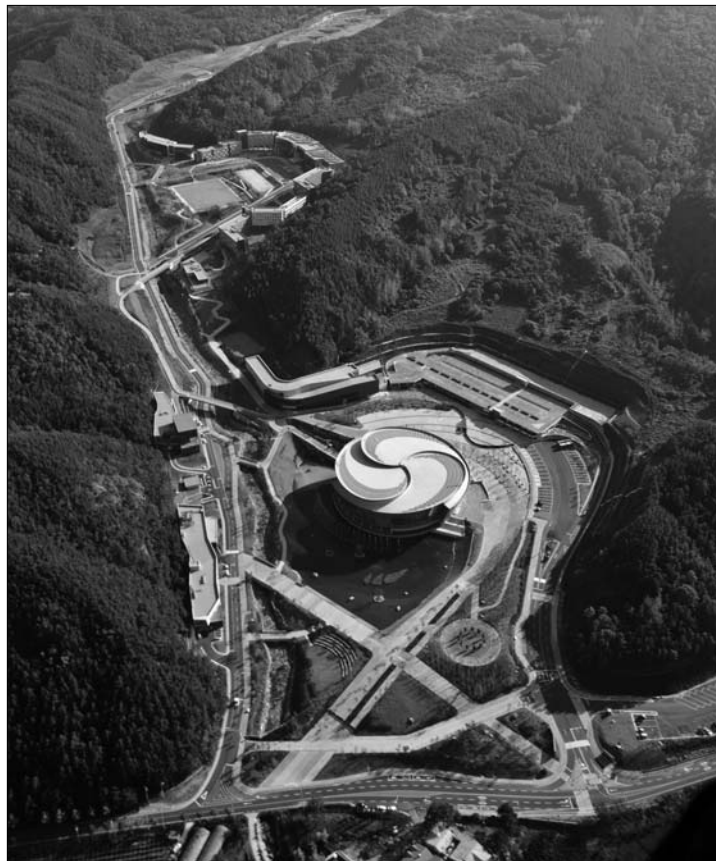
지위가 격상돼 자체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취장사업과 마케팅사업 등의 수입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조직위는 우리도민들의 관심을 위해 도내 주요 대학교의 태권도와 학생들로 태권도 시범단을 구성해 도내 시·군의 대표축제장 15개소를 순회하는 시범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리우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 현지에도 홍보팀을 파견해 각국 선수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7월 18일에는 '성공기원 세계태권도인 한마당' 행사를 도청광장 일원에서 개최해 본격적인 담금질을 한다. 이 행사는 정관계 인사와 국내외 태권도인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기원 퍼포먼스, 카운트다운 시계탑 제작식, 대회준비 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조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종석 사무총장은 "세계 8천만 태권도인의 이목을 전라북도로 집중시키고,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발판인 만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시점이다"며 "대회를 찾는 선수들에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역대 최고의 대회를 만든다는 목표로 남은 기간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민근 기자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될 태권도원 항공사진



남성고등학교 배구팀 올해 두 번째 전국대회 우승

남성고등학교(교장 박영달) 배구팀이 금년 들어 두 번째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전남 영광에서 열린 '2016 천년빛 영광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에서 다른 팀들에게 월등한 실력차이를 선보이며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예선 첫 경기에서 광주 전자공고와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이후 다음 4경기에서는 12세트를 따는 동안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지난 4월에 열렸던 전국대회 우승에 이어 금년 2연속 전국대회 제패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한편,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선수가 차지했으며 리베로상은 김선호 선수, 지도상은 이후상 교사가 차지해 기쁨을 더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생명과학고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 우승

전주생명과학고(교장 황인선) 배드민턴 팀이 제10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화려한 금빛 스포스를 날리며 우승을 차지했다.

생명과학고 배드민턴 팀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충남 당진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어려운 대진을 이겨내고 남고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예선 첫 경기에서 울산의 문수고를 3대0으로 가볍게 따돌리며 8강에 오른 생명과학고는 우승 후보로 꼽힌 강원 진원고와 치열한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하며 참가팀들을 놀라게 했다. 8강에서 최강팀을 몰리친 생명과학고는 준결승전 경기 매원고와 결승전 광주 전대서태부고를 각각 3대1과 3대0으로 가볍게 몰리치며 왕좌에 올랐다. /김민근 기자

/김민근 기자

전북현대, 오늘 FA컵 16강전 단국대와 홈에서 격돌

이종호·김신욱 조합 가동...서상민·장윤호 출장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오는 22일 저녁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단국대학교와 FA컵 16강전을 치른다.

현재 K리그 선수를 달리고 있는 전북은 지난 18일 리그 15라운드 인천과의 원정경기에서 '개막 후 정규리그 최다 연속무패(15경기)'라는 대기록을 새우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최강팀으로 거듭난 전북이지만 유난히 FA컵과는 인연이 없었다.

10년도 더 지난 2005시즌 FA컵 우승 이후 단 한차례도 FA컵을 들어 올린 바가 없다.

전북은 오랜 FA컵 악몽을 떨쳐내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단국대와 경기기를 방심하지 않고 치를 계획이다.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장했

던 이종호와 김신욱의 '빅 앤 스몰' 조합을 다시 한 번 가동하고, 그간 두터운 스쿼드로 선발 출장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던 서상민과 장윤호 등이 선발 출장에 단국대의 끝문을 두드릴 예정이다.

전북은 FA컵 대회에서 통산 7번의 대학팀과의 맞대결에서 7전 7승으로 전승 가도를 달리고 있어 무난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팬들은 7대2로 끝났던 2013년 FA컵 수원FC전처럼 화끈한 화려함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의 최강희 감독은 "상대가 어떤 팀 인지를 떠나서 홈경기이기 때문에 경기장을 찾은 팬들을 위해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현대대는 지난 18일 리그 15라운드 인천과의 원정경기에서 '개막 후 정규리그 최다 연속무패(15경기)'라는 대기록을 새우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청 체조팀, 회장배대회 7개 메달 수확

전북도청 체육팀이 제17회 한국실업체조연맹 회장배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는 등 혁혁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특히 이혁중 선수는 도마, 마루, 철봉, 링, 평행봉, 빔틀 등 6종목을 합산한 결과 84.150점을 기록하여 개인 종합 1위를 차지하였으며, 종목별결선에서는 안마 1위, 철봉 2위, 평행봉 3위 등 단체전을 포함해 5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 하태욱 선수 역시 링1위, 도마 2위를 기록하며 팀 상승세에 일조를 했다.

도 체조팀의 송충현 감독은 "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기술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부상방지에 만전을 기해 더 나은 선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